

직업의식 조사를 통해 본 국민들의 행복도

-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3.68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여자(74.51점)가 남자(72.96점)보다 행복도가 높게 나타남. 취업 여부에 따라 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남자는 취업자의 행복도가 미취업자보다 2.90점 더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실제 '가구 소득', 마지막으로 실제 '개인 소득' 순서임.
- 이는 비슷한 소득수준에서 보다 행복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사회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물가의 안정 필요함. 아울러 가구 소득이 개인 소득보다 개인의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 단위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인간의 각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 느끼는 행복의 정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파악

- 행복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고려하여 정신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의미함.
 - 개인이 수행하는 경제·사회적인 제반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해지거나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반면 행복도는 매우 낮음.
 - 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정기적으로 연구 및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의 정도를 경제 상태별, 취업여부에 따라 어떠한 지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설문조사」

- 분석 대상: 2014년과 2018년 직업의식 조사를 위하여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15~64세의 우리나라 일반 국민 2,505명임.
 - 연구자료로 활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성별, 연령, 학력, 취업 여부, 지역, 가구 소득) 정보는 <표 1>과 같음.
- 분석 방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간 평균 비교
 - F -검정: 집단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검증
 - t -검정: F -검정결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낸 두 집단 간 평균 비교



- 회귀분석: 경제 상태(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별 행복도 분석
- 유의수준: .05으로 설정함.
- 분석 내용: 개인의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 또는 happiness)의 정도를 측정
 - 개인이 어느 한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정서적·인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측정
 - 본 연구에서는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0(매우 불행)에서 100(매우 행복)으로 응답하였음.

〈표 1〉 행복 조사 표본 구성(n=2,505)

구분		분포(명)	비중(%)	구분		분포(명)	비중(%)
성별	남자	1,342	53.57	취업	취업	1,944	77.60
	여자	1,163	46.43	여부	미취업	561	22.40
연령	20대 이하	530	21.16	지역	강원·수도권	1,337	53.37
	30대	555	22.16		영남권	632	25.23
	40대	639	25.51		제주·호남권	287	11.46
	50대	587	23.43		세종·충청권	249	9.94
	60대	194	7.74		0-199만 원	105	4.23
학력	중졸 이하	206	8.22	가구 소득	200-299만 원	231	9.30
	고졸	980	39.12		300-499만 원	984	39.60
	전문대졸	449	17.92		500-699만 원	847	34.08
	대졸 이상	870	34.73		700-2200만 원	318	12.80

02 행복한 정도에 대한 응답

|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에 대한 응답은 100점 만점에 평균 73.68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응답자 가운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0점; 2명)' 또는 '행복하지 않다(40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1.80%로 소수였으며, '행복과 불행의 중간(50점)'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8.26%이었음.
 - 한편, '약간 행복한 수준(51점 이상)'은 91.6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00점으로 '매우 행복한 상태'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40%를 포함하여 행복도가 90점 이상인 응답자는 전체의 11.46%를 차지함.
 - 전체 평균은 73.68점으로 비교적 행복한 수준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남.
 - ※ 국민여가활동조사의 행복수준(6.83점/10점(2018), 7.10점/10점(2016))보다 약간 높음.

03 성별, 취업 여부별, 학력 수준별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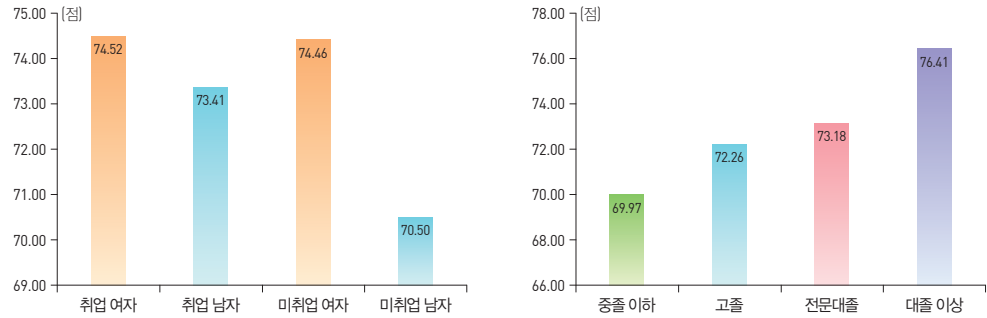
| 여자가 남자보다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취업 여부는 행복의 차이를 좌우하지 않으나, 취업한 남자의 행복도는 미취업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여자(74.51점)가 남자(72.96점)보다 더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는데($t=3.05$, $p<.05$), 이는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임.
 - ※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도 여자(6.88점/10점)가 남자(6.78점/10점)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임.
- 취업 여부로 보면 취업자(73.87점)와 미취업자(72.99점)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t=1.45$, $p>.05$). 이는 취업여부가 행복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님을 시사
- 취업 여부에 따른 성별 행복도 비교 결과, 여자의 경우 취업 여부에 따라 행복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반면, 남자의 경우 취업자의 행복도가 미취업자보다 2.90점 더 높게 나타남($t=3.05$, $p<.05$).
 - 취업자 중 남자와 여자의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미취업자 중 여자는 남자보다 3.96점이 더 높게 나타남($t=3.58$, $p<.05$).
-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중졸 이하 집단(69.97점)은 행복도가 가장 낮았고 대졸 이상 집단(76.41점)과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6.45점)를 보였음($t=6.66$, $p<.05$). 반면, 고졸집단(72.26점)과 전문대졸 집단(73.18점)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t=-1.29$, $p>.05$). 또한 대졸 이상 집단은 전문대졸 집단보다 평균이 3.24점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t=-4.46$, $p<.05$).

| 주 |

- 1) 취업·성별 F -검정 결과:
 $F_{(3, 2501)}=6.22^*$, t -검정 결과:
 취업 여자vs미취업 여자:
 $t=0.08$, 취업 남자vs미취업
 남자: $t=3.05^*$, 취업 여자vs
 취업 남자: $t=1.92$, 미취업
 여자vs미취업 남자: $t=3.58^*$
- 2) 학력수준별 F -검정 결과:
 $F_{(3, 2501)}=6.22^*$, t -검정 결과:
 중졸이하vs고졸: $t=-2.39$,
 고졸vs전문대졸: $t=-1.29$,
 전문대졸vs대졸이상: $t=-$
 4.46^*

3) $^*=.05$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성별, 취업 여부별, 학력 수준별 행복도

04 연령별, 지역별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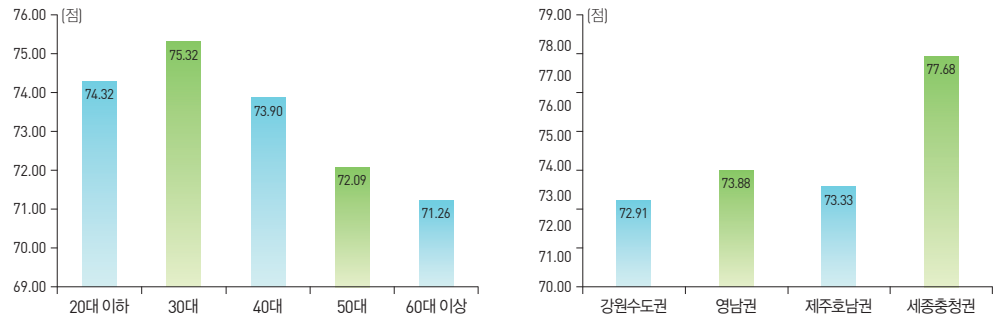
| 연령별로 30대의 행복도가 가장 높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행복도는 낮아지고 있음.
 지역별로 세종충청권 거주자의 행복도가 뚜렷하게 높음.

- 연령별로 30대의 행복도(75.32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 이하(74.32점)이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도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30대의 행복도는 50대(72.09점)와 60대 이상(71.26점)의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t=4.33, p<.05$; $t=3.87, p<.05$).
 - 동일한 연령 내에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행복도는 20대>30대>40대>50대>60대>10대>70대순이었음.
- 지역별로 세종충청권 거주자(77.68점)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수도권 거주자의 행복도(72.91점)가 가장 낮아 4.77점의 큰 차이를 나타냄($t=-5.49, p<.05$)
 - 세종충청권 거주자의 행복도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으나, 나머지 지역 간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동일한 지역 거주자의 성별 행복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주 |

- 1) 연령별 F -검정 결과: $F_{(4, 2500)}=6.87^*$, t -검정 결과: 20대 이하vs30대: $t=-1.30$, 30대vs40대: $t=1.95$, 40대vs50대: $t=2.51$, 50대vs60대 이상: $t=0.80$
- 2) 지역별 F -검정 결과: $F_{(3, 2501)}=10.87^*$, t -검정 결과: 강원수도권vs영남권: $t=-1.60$, 영남권vs제주호남권: $t=0.61$, 제주호남권vs세종충청권: $t=-3.98^*$

3) $^*=.05$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2] 연령별, 지역별 행복도

05 경제 상태와 행복도

| 취업자가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행복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각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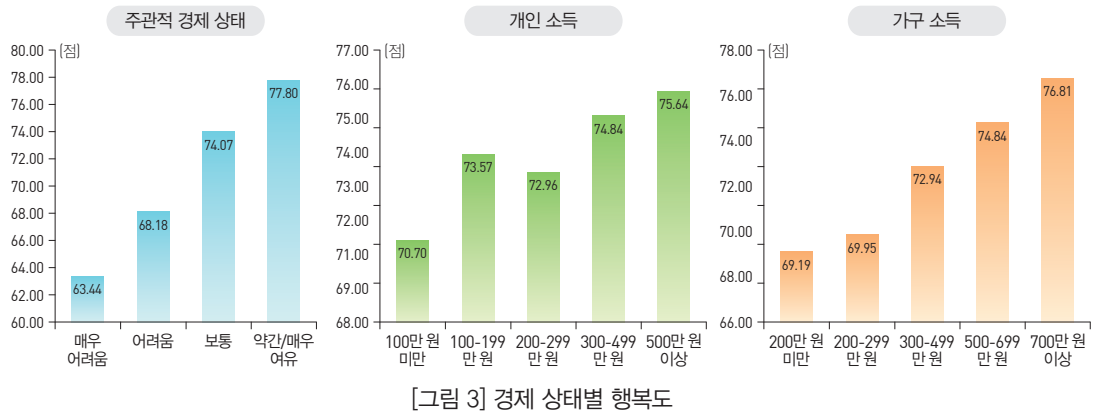
- 1) 주관적 경제 상태: 개인이 느끼는 경제 상태(①매우 어렵다~⑥매우 여유가 있다), 개인 소득: 개인의 월평균 소득(3개월 기준), 가구 소득: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3개월 기준)

- 경제 상태 3가지 변수¹⁾ 가운데 집단별로 '주관적인 경제 상태'의 차이가 행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됨($F_{\text{주관적 경제 상태}} > F_{\text{가구 소득}} > F_{\text{개인 소득}}$).
- 주관적 경제 상태별 행복도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한 단계 여유롭다고 생각할수록 행복도가 평균 4.79점 높아지고 있음($F_{(1, 2503)}=187.13, R^2=.0696, t=13.68$).
 - 주관적 경제 상태에서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취업자는 다른 응답자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더 낮은 만족을 나타내었으며, '약간 여유가 있다' 또는 '매우 여유가 있다'라고 응답한 취업자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14.36점)를 보이고 있음($t=8.59, p<.05$).

- 개인 소득별 행복도 회귀분석 결과, 한 단계 여유롭다고 생각할수록 행복도가 평균 1.00점 높아지고 있음($F_{(1, 1932)}=13.61, R^2=.0070, t=3.69$).
 - 100만 원 미만에 속하는 사람은 뚜렷하게 낮은 만족을 보이고 있음. 특히 개인 소득이 500만원 이상 응답자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4.94점)를 보이고 있음($t=3.31, p<.05$).
 - 성별로 비교한 결과 개인 소득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이러한 결과는 개인 소득은 취업자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
 - 가구 소득별 행복도 회귀분석 결과, 한 단계 여유롭다고 생각할수록 행복도가 평균 2.06점 높아지고 있음($F_{(1, 2503)}=63.61, R^2=.025, t=7.98$).
 - 한편 개인별로 가구 소득 1만 원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0.0009 정도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남($F_{(1, 2503)}=9.42, R^2=.0038, t=3.07$).
 - 가구 소득이 낮은 계층인 200만 원 미만 계층과 200만원~300만 원 미만은 행복도의 차이가 없음. 아울러 높은 계층인 500만 원~700만 원 미만과 700만 원 이상 계층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그러나 가구 소득에서 하위(300만 원 미만), 중위(300~500만 원 미만), 상위집단(500만원 이상)간 차이는 매우 뚜렷함. 특히 최하위 소득집단과 최상위 소득집단은 7.62점 차이를 보이고 있음($t=5.41, p<.05$).
- ※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도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짐.

| 주 |

- 1) 주관적 경제 상태 F-검정 결과:
 $F_{(3, 2501)}=64.02^*, t$ -검정 결과: 매우 어려움vs어려움: $t=-2.79$, 어려움vs보통: $t=-8.70^*$, 보통vs약간/매우 여유: $t=-6.17^*$
- 2) 개인 소득별 F-검정 결과:
 $F_{(4, 1927)}=4.55^*, t$ -검정 결과: 100만 원 미만 vs 200만 원 미만: $t=-2.12$, 200만 원 미만vs300만 원 미만: $t=0.73$, 300만 원 미만 vs500만원 미만: $t=-2.64$, 500만 원 미만vs500만 원 이상: $t=-0.78$
- 3) 가구 소득별 F-검정 결과:
 $F_{(4, 2480)}=16.20^*, t$ -검정 결과: 200만 원 미만 vs 300만 원 미만: $t=-0.51$, 300만 원 미만vs500만 원 미만: $t=-3.27^*$, 500만 원 미만 vs700만원 미만: $t=-3.25^*$, 700만 원 미만vs700만 원 이상: $t=-2.40$
- 4) $^*=.05$ 수준에서 유의함.



06 시사점

-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인구통계적 변인과 경제 상태에 따라 다름을 시사
 - 취업 여부는 남자와 여자의 행복도에 다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남자는 전통적으로 가구의 주 소득원으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고학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됨. 또한 고학력자는 소득수준이 저학력자보다 높아 소득 수준이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
 -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행복도는 73.68점/100점 기준으로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6.83 점/10점 기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고령층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환경 조성고 고령자가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 경제여건 측면에서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개인의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가구 소득의 영향이 큼.
 - 행복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득수준 자체보다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 그러므로 비슷한 소득수준에서 보다 행복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사회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실질소득의 유지 혹은 향상을 위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됨.
 - 가구 소득이 개인 소득보다 개인의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 단위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박 천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 화 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